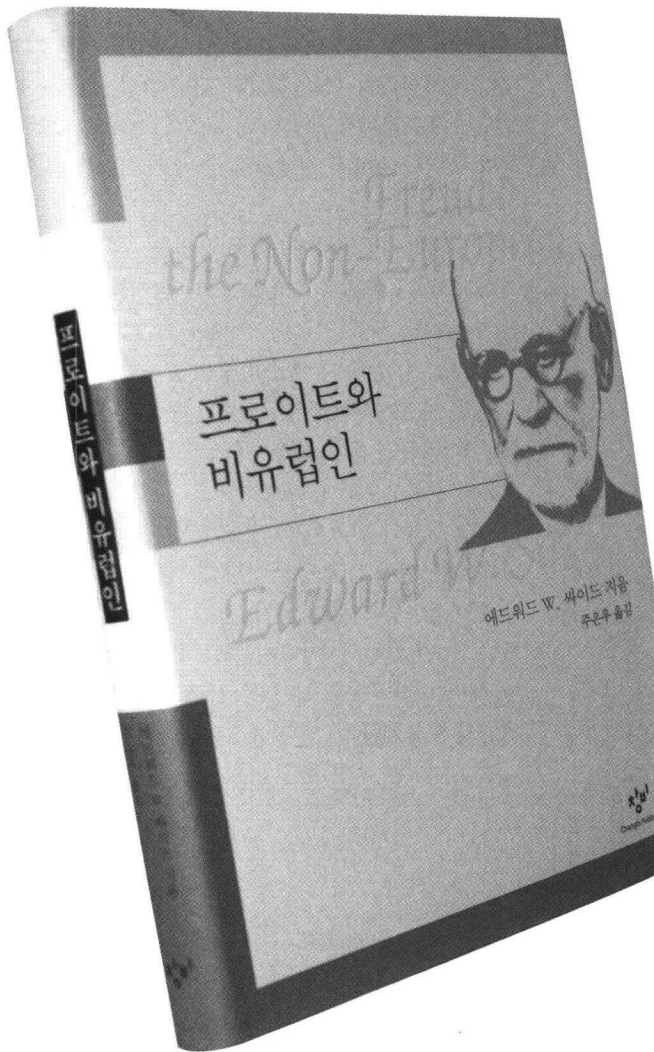


정체성은 위험하다

에드워드 W. 싸이드의 《프로이트와 비유럽인》



《프로이트와 비유럽인》

에드워드 W. 싸이드 지음 | 주은우 옮김 | 창비 | 148쪽 | 값 9,000원

● 이 글을 쓴 박홍규는

영남대학교 법과대학과 일본 오사카시립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한 뒤 영남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영국 노팅엄대학교,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에서 법학을 연구했으며 일본 오사카대학교, 리츠메이칸대학교, 고베대학교 객원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노동법》(삼영사) 《내 친구 빈센트》(소나무) 외 다수가 있으며, 역서로 《오리엔탈리즘》(교보문고) 《문화와 제국주의》(문예출판사) 외 다수가 있다.

아직도 번역서만 보면 불안부터 느끼는 나는 하나의 번역서를 한숨에 독파한 경우 정말 행복하다. 특히 사이드의 책 두 권의 번역을 시비한 적이 있는 나는 8월에 나온 사이드의 《프로이트와 비유럽인》(주은우 역, 창비)을 읽고 정말 행복했다. 그런 행복을 맞보게 해준 번역자에게 먼저 감사한다. 이 기회에 앞서 번역된 《사이드 자서전》《평행》《다시 보는 오리엔탈리즘》의 훌륭한 번역자들에게도 감사한다.

물론 더 큰 감사는 저자인 사이드에게 주어져야 한다. 사이드를 어지간히 읽었다고 자부하는 나도 그의 유작에 다름없는 이 책을 읽고 그 사고의 깊이와 넓이, 특히 실천적 감각에 다시 놀랐다. 나는 1980년대에 그의 《오리엔탈리즘》을 읽고 너무나도 놀라 결국은 비전공자이면서도 그것을 번역하게 되었는데, 사이드는 그 20여 년이 지나 죽은 뒤에도 나를 놀라게 하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이런 저자의 독자 또는 역자로서 너무나도 행복하다.

그러나 놀람의 근본 이유는 나의 무지에 있으니 사실은 불행하다. 20, 30년을 읽었다는 사이드는 물론 프로이트에 대한 무지에 있어서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 젊어서 열심히 읽기는커녕 반사회(주의)적이라는 이유에서 무조건 멸시한 프로이트를 다시 읽어야 한다고 느낀 것이 벌써 10여 년이 넘었지만 제대로 읽지 못한 탓이다. 가끔은 프로이트와 그 학파, 그리고 그 소개자들 탓으로 돌리기도 하지만 역시 근본 이유는 나의 지적 태만으로 인한 무지에 있다. 그러나 이런 기회에 무지를 자각하니 역시 행복한 것이 아닐까?

여하튼 19세기 서양 오리엔탈리즘의 세례를 받은 프로이트를 비롯한 당대 대부분의 지식인에게 비서양에 대한 인식이란 제국주의적인 것이었으리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그것은 당연히 옳은 것이며, 따라서 프로이트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책을 무시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가령 영국의 모리스는 소위 대영 제국주의에 반대했다. 프로이트는 그런 모리스와 전혀 달랐지만 제국주의와 관련되어 읽히는 구석이 있다.

사이드는 《프로이트와 비유럽인》에서 프로이트의 사상 전체, 또는 비유럽인에 대한 사상을 논의하지 않고, 《모세와 일신교》(1939)라는 프로이트의 유작을 중심으로,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내재적 비판이라는 점을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나처럼 혹시 프로이트에 무지한 사람이라도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연장선에서 이 책을 읽을 수 있다. 아니 《오리엔탈리즘》을 몰라도 무방하다. 원래가 강연이었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다. 그런 대가가 이 정도로 쉽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역시 진정한 대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리라.

《베니스의 상인》에서 보듯이 서양에서 유대인이란 오랫동안 철저한 경멸과 배척의 대상이었다가 19세기에 해방이 되어 수많은 천재를 낳았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 유대인에 대해 유럽인과의 이질성을 강조한 비유대인 르낭, 고비노, 바그너와 달리, 프로이트를 비롯한 다수 유대 지식인들은 그들의 조상인 모세가 그러했듯이 유럽문화에의 동화와 그 결과인 동질성, 아니 더욱 정확하게 말하면 보편성을 강조했다. 어쩌면 그 결과로 여러 유대인 천재들, 그 중에서도 특히 마르크스, 프로이트,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들이 나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프로이트를 비롯한 여러 천재가 유대인이고, 유대인은 강력한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며, 그런 민족적 정체성으로부터 프로이트와 같은 천재들이 나왔다는 것이 상식일지도 모른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유대인이 2천년 동안 그 민족적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에 수많은 천재를 낳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19세기 이래 유대인들이 인종적, 종교적, 민족적 편견에서 해방되어 과학적 지성의 보편적 연대를 추구하였었기에 그런 천재들이 나타났다고 봄이 옳다.

특히 사이트에 의하면 프로이트는 유대인에 대한 어떤 신적 또는 종교적 정통성의 부여도 거절했고, 그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어떤 견고한 본질주의적인 태도도 제공하지 않았다. 도리어 그는 어떤 정체성에도 그것이 단 하나의 정합적인 정체성으로 완전히 병합되는 것을 방해하는 내재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프로이트는 유대 정체성의 정초자인 모세가 유대인도, 유럽인도 아닌 이집트인이고, 일신교 역시 그 기원이 유대인이 아닌 이집트에 있으며, 기독교 역시 유대교에서 나왔고 예수도 비유럽인인 유대인임을 지적했다. 이처럼 유대민족의 비유대적 성격을 주장한 이유는 유대인 정체성의 정합성을 해체하여 나치를 비롯한 유럽의 반유대주의에 대응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런데 제2차 대전 후 이스라엘은 그런 프로이트를 무시하고 마치 과거 제국주의 서양인 듯이, 강력하고 고정된 본질주의적인 유대인 정체성에 입각한 오리엔탈리즘에 젖어 있다고 사이트는 비판한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 박멸을 결과한 르낭, 고비노, 바그너의 사상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는 지금 아랍에 대한 본질주의적 편견에 가득한 부시나 헌팅턴을 비롯한 미국의 신보수주의로 이어지는 맥락이기도 하다.

사실 정체성이란 대단히 위험한 것일 수도 있다. '나는, 너는 누구냐' '우리는, 너희는 누구냐' 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나와 너, 우리와 너희의 차이를 강조하고 서로 배척하는 것이 되어버리면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나 코소보의 인종청소처럼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

이는 인종이나 민족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이데올로기 문제일 수도 있다. 특히 같은 민족 사이에서 이데올로기 문제로 3년간 전쟁을 하고, 반세기 이상 대결하여온 우리에게 정체성이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나아가 일본이나 중국에 대하여 주장되는 민족의 정체성이란 것도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일본이나 중국이 제국주의적으로 그런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에 맞서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하는 것일까? 도리어 일본이나 중국에 대해 그런 정체성의 신화에 젖지 말라고 비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동아시아, 아시아, 세계의 유대와 평화라는 이상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사이드 역시 그런 염원에서 백혈병으로 죽어가면서도 그 직전에 《프로이트와 비유럽인》 강연을 통해 이스라엘과 서양의 지식인들에게 호소하고자 했으리라. 그가 평생 재직했던 뉴욕 컬럼비아대학 부근 리버사이드 교회의 장례식에서는 그의 친구인 유대인 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인 다니엘 바렌보임이 바흐, 모차르트, 브람스를 연주했다. 물론 그곳에는 아랍인도, 유대인도, 미국인도 많았고, 동양인도, 흑인도, 히스패닉도 있었다.

여기서 사이트의 프로이트에 대한 이상의 논의는 현재 상황에 대한 통찰을 빼면 사실 그다지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두어야 하겠다. 즉 '모세와 일신교'에 대한 사이트의 견해는 이미 충분히 연구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프로이트를 현대 이스라엘 중심의 오리엔탈리즘에 가져오는 그의 솜씨는 역시 대가의 그것이다.

마지막 사족으로 한마디만 더한다면 《프로이트와 비유럽인》에서 저자 이름이 위에서 말한 사이트가 아닌 '싸이드'로 표기되어 있고, 에세이가 '에쎄이'로 표기되는 점에 의문을 갖는다. 싸이드로 읽어야 옳은지, 서양인이나 중동인이 사이트로 읽는지 싸이드로 읽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이미 사이트나 에세이로 통용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쓰는 이유를 알 수 없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밝혀주어야 다른 사람들이 달리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주필**